

시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음악비평수업모형 개발

이 보 림*

본 연구는 음악 감상을 즐기는 시각장애인들이 체계적 음악 비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음악비평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는 교수매체 고안을 위해 문헌 연구를 하였고, 음악 감상과 비평에 대한 시각장애 학습자들의 요구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맹학교 고등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분석과 설문결과를 통합하여 음악비평수업모형을 개발한 후, 이 모형의 현장 적합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맹학교 음악교사 3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중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Likert Scale)로 측정된 요구분석 결과를 볼 때, 음악 감상 선호도를 묻는 평균값이 4.47(SD=0.64)이고, 음악비평에 대한 관심은 평균 3.62(SD=1.22)였다. 여러 예술비평 유형에 관해 학생들은 대부분 다소 평이한 반응을 보였지만, 인상주의 비평유형에 대해서는 높은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스톨니츠(Stolnitz)의 5가지 예술비평유형과 펠트만(Feldman) 비평단계의 맥락적 수정(Contextual Modification)을 융합하여 만든 8단계 수업비평모형에 대해 전문가 집중 인터뷰를 통하여 진단한 결과, 3인 모두로부터 시각장애 학습자에게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단계 순서나 확실한 차시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제안 받았다.

※ 주제어: 음악비평유형, 음악비평단계, 음악비평수업모형, 시각장애 학습자 음악교육, 음악교육, 특수음악교육, 맥락적 수정

차 례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연구 내용 및 문제

II. 이론적 배경

1. 음악비평의 개념과 유형들
2. 펠트만의 미술비평단계와 맥락적 수정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3.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방법
4. 자료분석방법

IV. 연구결과

1. 1차 연구대상 요구분석
2. 음악비평수업모형 개발
3. 전문가 집중 인터뷰 결과(FGI)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음악교육전공 박사수료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이 지구상에서 시각장애인은 대략 200명당 한 명꼴인 3900만 명에 달하며, 그 외 2억 4600만 명은 부분적으로 또는 심각한 활동제약을 받을 정도로 시력이 낮다고 한다.¹⁾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치가 어떠한가?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내놓은 등록장애인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시각장애인 수는 25만 2천명으로서 이는 지적장애인 19만 5천, 자폐성 장애인 2만 3천명보다도 현저히 많은 수임을 알 수 있다.²⁾ 여기서 말하는 시각장애인이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사전적 의미로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아주 약한 시력만 남아 있어서 앞을 보기 어려운 사람을 의미한다. 특별히 시각장애는 가장 심각한 인간 감각의 박탈이며, 시각장애를 갖고 생활한다는 것은 정상 생활을 보장하는 인간인지를 위한 복합 감각채널의 90%에 해당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는 연구가 있다(Colenbrander, 2001; Strumillo, 2010; 최동연, 2015, p. 6에서 재인용).

일부의 가벼운 질환 또는 장애로 여기고 넘어가기에는 그 수도 상당하고, 고통도 중하다. 그래서 이들 삶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진행되어왔다. 이는 학계에서 시각장애인의 아픔을 자각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동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 연구는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Riss 통합검색에서 살펴본 결과로는 ‘시각장애인’이란 검색어로 총 1,328편의 학위논문과 1,518편의 학술논문 등 적지 않은 수의 연구가 검색되었다. 그렇다면 음악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시각장애인+음악’의 검색결과를 학위논문 65편과 학술논문 30편이 전부로, 이 중 검색어의 간접관련으로 인해 결과에 포함된 것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아직 적은 수의 연구만이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과연 음악교육이 시각장애인에게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교육이어서 그런 것인가?

연구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음악하기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이보림, 2015)’를 수행하면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들, 즉 성취의 잦은 부재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과 앞의 욕구 앞에서의 좌절감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의 단절감 등

1) National Geographic, 2016, pp.2-25

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8

이 음악을 통해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내·외적 동기를 유발하는 구실을 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하나의 감각양식 상실은 다른 양식들의 피질 과정의 극적인 재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특별히 음악적 재능에 포함될 수 있는 청각이나 촉각의 보상적 향상이 있다는 연구보고(Rauschecker, 1995; S. Hallem, 2006; 고선미 역, 2011, p. 23)는 시각장애인의 음악교육을 향한 낙관적인 당위성으로 다가온다. 이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장애로 인해서 청각과 촉각이 일반인의 수준보다 나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연구자가 2008년부터 가졌던 시각장애인과의 소통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³⁾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은 여러 연구결과들과 10년여 동안 연구자의 시각장애인 경험들을 근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음악비평 수업모형을 개발하려 한다. 그리하여 기존 성인 시각장애인들의 양상처럼 음악 감상을 단순히 듣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본 연구의 수업모형을 통해 학습한 바로 이 후부터, 이들에게 더욱 유효한 체계적 음악 감상 비평의 초석을 다지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악기연주’나 ‘노래’등 여타 음악학습이 아닌 감상전체의 ‘비평’이 필요한 이유는 ①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대한 고려, ②이들의 일반적 여가활동 비율을 반영, ③선행연구와의 결과연계, ④특수교육과정의 적용, 마지막으로 ⑤음악비평의 융합(STEAM)교육적 기능 등에서 기인한다. 먼저,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기에 ‘악보’라는 매체 앞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점자악보’가 있지만 노래를 부르며, 또는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하는 동시에 점자악보를 손으로 짚어가며 읽는 것은 매우 불편하거나 또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음악활동은 감상일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여가시간이 많은 부분 음악 감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연구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⁴⁾ 또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인 음악활동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3) 연구자가 2007-2010년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할 당시, 연구자의 피아노 담당교수는 중도 실명한 피아니스트였고, 그것을 인연으로 연구자는 2012년 1월부터 한국에서 시각장애인 합창단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활동을 했으며, 현재까지 이전과는 또 다른 시각장애인 합창단과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반주자로 봉사활동하고 있다.

4) 본 연구의 참고문헌에 수록하였다.

들의 ①성취감, ②앎의 욕구 충족, ③사회적 소통의 향상은 음악비평 활동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항목이라 여겨졌고, 계속해서 특수교육과정 내의 선택교육과정에 제시된 ‘음악 감상과 비평’과목으로 인해서 본 연구의 공교육적 활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덧붙여 설명하자면 이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위해서만 개설되었기에,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고등학교 학습자로 설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융합(STEAM)교육은 음악교육에서도 많은 효과성이 검증되며 최근 연구 동향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인데, 음악비평을 통하여 음악교과와 역사, 사회 그리고 문학 등 다른 교과와의 융합적 교육이 가능하며, 이는 또 음악과 접목한 새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문학적 접근을 시사하기도 한다.

3. 연구내용 및 문제

이러한 필요성에 바탕을 둔 연구목적이 실현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설계한 요구분석을 1차 연구대상에게 실시하고, 그 다음 결과와 문헌연구를 통합하여 음악비평 수업모형을 개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서, 전문가 집중 인터뷰(FGI)를 통해 개발한 모형의 적합성을 진단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절차를 위해 스톨니츠(Stolnitz)⁵⁾의 예술비평유형과 함께 동시에 펠트만(Feldman)⁶⁾의 미술비평단계를 적용하기에 앞서, 본 연구자는 미술작품과 음악작품이 같은 예술작품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지하여 본 연구를 진행함을 밝힌다. 실제로 스미스(Ralph Smith)는 그의 연구에서 미적 교육의 개념화를 통해 미술시간에 이루어지는 감상과 비평 등의 교육은 음악, 연극, 춤 등의 범주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정수기, 2008, p.112). 또 브라우디(Harry Brooudy)도 마찬가지로 미적 교육은 미술교육에만 해당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하였다(Efland, 1990; 1996; 정수기, 2008, p. 112에서 재인용). 그러나 시각예술이며 공간예술인 미술과 청각예술인 동시에 시간예술인 음악에는 엄연한 특질적 차이가 존재하기에, 연구자는 펠트만의 미술비평단계를 음악과의 특성에 맞도록 맥락적 수정을 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연구의 대상인 시각장애인 고등학생은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인가? 물론 중복장애 학생을 제외하고는 여타의 정안인들과 일반적으로 다르지

5) Jerome Stolnitz(1925~, New work)

6) Edmund Burke Feldman(1924~, Bayonne)

않은 지적수준과 행동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의 통합수업이 가능하지만, 보통은 맹학교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⁷⁾에서 특수교육⁸⁾을 받게 된다.

위의 연구계획 하에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맹학교 고등학생의 음악 감상 및 비평에 대한 학습 요구를 분석한다.

둘째, 시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음악비평수업모형을 개발한다.

셋째, 시각장애 음악교육 전문가들을 통해, 개발한 음악비평 수업모형의 적합성을 진단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음악비평의 개념과 유형들

1) 음악비평의 개념

비평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옳고 그른,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함’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비평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유사하더라도 각자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우문영(2011)은 비평이란 대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대상에 대해 관찰을 하고 대상이 지닌 의미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고, 자신의 삶과 관계를 맺은 후 자신의 대상으로 재창조하는 과정 전체를 뜻한다고 정의하였고, 차성연(2017)은 비평이란 일정한 텍스트에 대한 비평자의 독창적인 해석으로서, 늘 또 다른 해석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통하는 행위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 음악비평은 어떠한 개념을 가지는 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음악비평에 대해 아셴브래너(Aschenbrenner)는 음악이 가진 특질을 알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라 하였으며

7)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현재 전국에는 국립 1개교, 공립 3개교(제주영지학교 포함), 사립9개교로 총 13개의 맹학교가 있다.

8)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Aschenbrenner, 1974; 박진홍, p. 29에서 재인용), 슈프링거(H.Springer)는 많건 적건 규칙적으로 세상에 대해 책임을 갖고 행해지는 음악작품 및 음악활동에 관한 의견의 표명이라 정의하였다(H. Springer, 1930; W. Braun, 1970, 대한음악저작연구회 역, 1991, p. 13에서 인용).

일반적 비평의 의미와 음악비평의 개념 모두 비평의 해석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지만, 개인의 내적인 사고체계 안에서 또는 사회적인 소통과 관련한 비평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신의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예술가의 언어를 번역해야 한다”고 말한 노드롭 프라이(Nothrop Frye)의 이야기는 비평의 역할에 대한 강조(서대정, 2013, p. 136)이며, 그와 동시에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적 신중함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특별히 스톨니츠는 예술 자체의 본질 때문에 해석적 비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은 거의 모두가 고도의 복잡성을 띠며, 예술작품의 형식적 구조는 종종 미묘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작품을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을 명료하게 볼 수 있다고 서술하며 예술작품에 있어서 해석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계속해서 스톨니츠는 이러한 해석이 여러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음악을 내포하는 여러 가지 예술비평 유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예술비평의 유형⁹⁾

스톨니츠(1960)는 5가지 예술비평의 유형 즉, 규칙에 의한 비평, 맥락적 비평, 인상주의 비평, 의도주의 비평, 내재적 비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들을 맥락적 수정을 거친 펠트만의 단계와 조합하여 그 의미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사용된 펠트만 단계 순서의 양태에 따라, 작품 내부를 비평하는 유형이 초기에 이루어지고, 외재적인 부분을 비평하는 유형이 ‘재감상’ 후에 수행된다. 계속해서 여러 음악비평유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9) 본 논의는 (J.Stolnitz, 1960; 오병남 역, 1991)을 참고하였다.



[그림 1] 스톨니츠의 비평유형, 1960

(1) 인상주의 비평(Impressionist Criticism)

“예술을 위한 예술”은 필연적으로는 맥락주의와 반대된다. 이 인상주의 비평에 의하면 비평가의 정서는 필연적으로 일깨워지며, 비평가가 필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기질, 물리적 대상들의 현존에 의해 깊은 감동을 받는 힘”이다. 또 비평가는 작품을 보면서 그의 상상력과 정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며, 비평가 자신의 열정을 독자의 마음속으로 더 잘 배어들게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인상주의 작곡가 드뷔시(Debussy)는 자신의 인상을 표현하는 것이 비평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며, 모든 인위적인 분석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Max Graf, 1946; Stolniz, 1960; 오병남 역, 1991, p. 452에서 재인용).

(2) “규칙”에 의한 비평(Criticism by “Rules”)

비평가는 작품의 성질이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좋게 만드는지 보여줄 수 있을 때만 자신의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를 확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술 작품을 가치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비평가는 예술적인 좋음(Artistic Goodness)을 인지하고 판단할 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기준은 “박진성(Verisimilitude)” 또는 “도덕적 고결함(Moral Nobility)” 그리고 “감정적인 힘(Emotional Power)” 등일 것이다.

(3) 내재적 비평(Intrinsic Criticism)

20세기에는 새로운 비평운동, 즉 우리가 신비평(New Criticism)이라고 알고 있는 문학비평운동이 펼쳐진다. 이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오직 작품의 내재

적 본질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작품의 외재적 요소를 거부하며, 맥락 비평에 대한 혹독한 비난의 시선을 가진다. 그리고 그들은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강조한다는 이유로 인상주의자 또한 반대한다. 또 규칙에 의한 비평 역시 반대하는데, 이는 재단적 비평보다 해석적 비평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특정한 예술작품을 분석하는데 몰두하며, 해석적인 가치평가가 산출되도록 노력한다.

모든 내재적 비평은 특정한 작품의 개성을 존중하며, 미적 지각 자체처럼 작품에 대한 특징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그 작품이 유사한 다른 작품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찾는다. 특별히, 한슬릭(Hanslick)은 “순수하게 음악을 듣고 있는 행위 중에 우리는 음악만을 즐기며 거기에 어떤 외적인 사항을 부여하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정을 일으키는 경향도 음악외적인 것이다.” 라고 하며 음악의 내재적인 의미를 강조하였다(Hanslick, 1891; Stolnitz, 1960; 오병남 역, 1991, p. 206에서 재인용).

(4) 의도주의 비평(Intentionalist Criticism)

이제 비평의 핵심문제는 “시인은 무엇을 하려 했으며 어떻게 그 의도를 달성하였는가?”이다.

의도주의는 항상 미적 “공감”의 대변인이며, 예술가의 영혼으로부터 소외된 영혼으로 작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작품 속에서 오류를 찾지 못하게 하는 당위성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의도”라는 말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예술에 대한 우리의 언급에 혼돈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의도”라는 말 자체가 비평을 위한 타당하고 효과적인 기초가 아님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의도”라는 말은 심리적인 용어이며, 예술가의 마음속에서 지속된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창작의 과정에서 예술가가 완성하기 원하는 예술작품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다.

(5) 맥락적 비평(Contextual Criticism)

맥락비평은 그 형태에 있어서 예술 비평처럼 오래된 것으로, 어떤 예술작품은 명백하게 사회적인 산물이다. 그 이유는, 예술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하며, 해당 사회가 속해 있는 민족적 특질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의 “맥락”은 작품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나, 사회에 미치는 효과, 또는 작품이 가지는 심미적 생기와는 또 다른, 작품외부의 것들과 연결된 상호작용 모

두를 의미하는 말이다. 특히 작품의 도덕적 영향력을 강조한 플라톤(Plato, BC 428~348)이나 톨스토이(Leo Tolstoy, 1828~1910)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술작품은 사회의 개혁이라는 목적을 두고 쓰일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대중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맥락비평은 예술작품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맥락을 탐구하는 비평이다.

2. 펠트만의 미술비평단계와 맥락적 수정(Contextual Modification)

펠트만(1970)은 미술비평을 하는데 있어서 서술(Description)-분석(Formal Analysis)-해석(Interpretation)-평가(Evaluation)의 4단계의 전개를 주장하였다. 여기서 그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고, 점차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것과 같이, 비평의 단계 또한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청각예술인 음악과목 연구의 특수성에 맞도록 미술용어를 음악용어로 해설하였음을 밝힌다.



[그림 2] 펠트만의 미술비평단계, 1970

1) 펠트만의 미술비평단계¹⁰⁾

(1) 서술(Description)

펠트만의 비평단계에서 서술은 대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작품의 특성을 잘 알게 되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 주관적인 반응은 배제된다. 즉, 서술에서의 목적은 표현된 형태(구조), 색상(음색), 공간(리듬), 중량감(음의 세기)과 예술적 기교 등을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특별히 펠트만은 “공정하고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언어에 신경을 써서 감정과 기호가 들어간 지나친 말이나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10) 본 논의는 류재만 외(2004)를 참고하였다.

(2) 분석(Formal Analysis)

이 단계에서는 작품 내에서 각각의 형태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서술을 하게 된다. 즉, 작품 안에 존재하는 구조와 구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형태관계(구조)
- 색상관계(음색)
- 질감관계(작곡가, 연주자에 의한 아티큘레이션)
- 공간, 부피의 관계(리듬, 악곡의 규모)

(3) 해석(Interpretation)

해석단계는 주제와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통해 작품에 나타난 정서와 의미를 알게 된다. 특히, 비평에 있어서의 해석은 서술과 분석을 근간으로 작품 전체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비평 수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딜타이(Dilthey, W.)는 해석이 이해의 특수한 형태이고, 이것은 외면적이고 자연적인 사실을 밝히는 설명이 아닌,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파악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이은적, 류재만, 진성수, 김홍숙, 2004, p. 293). 그러므로 해석은 작가(작곡가, 연주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4) 평가(Evaluation)

평가는 명료한 근거와 기준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가능한 많은 다른 작품들과의 연관된 수평적 평가가 필요하며, 미술사(음악사)에 있어서 수직적 연계성을 수반한 판단이 요구된다. 즉, 수직·수평적 관련성을 근거삼아 주관성을 견제한 채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당화한다.

2) 맥락적 수정(Contextual Modification)

펠트만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감정과 선호가 드러나는 단어를 지양하는 등 언어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서술했다(Feldman, 1970, pp. 350-351). 하지만 이것은 예술작품을 지각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적 경험의 출현을 억누르는 것이 될 수 있고, 예술 감상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듀이는 작품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순수하고 적극적인 탐구의 태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이런 태도와 함께 감상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를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초기 반응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Dewey, 1933; 김창식 외, 1999, p. 148에서 재인용). 또 예술비평의 여러 유형에 대해 논의한 스톨니츠(1960)도 비평이란 느껴진 미적반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Stolnitz, 1960, p. 449). 이러한 이론과 뒤에 소개될 학생들 설문결과를 근거로 하여, 연구자는 펠트만의 기술단계 이전에 ‘최초반응’의 단계를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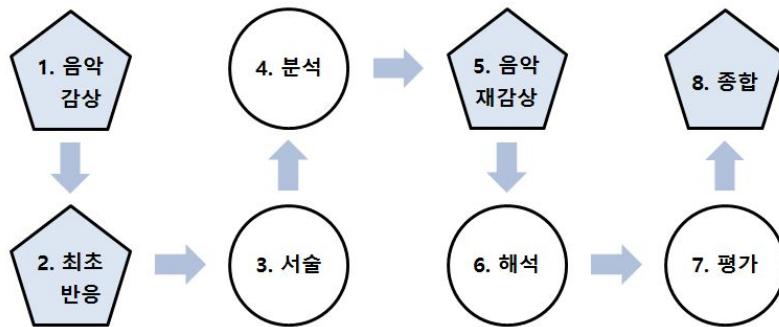
또 본 연구에서는 미술작품을 계속적으로 감상하며 비평하는 펠트만의 단계에서는 없었던 ‘음악 감상’과 ‘재감상’을 삽입하였다. 이것은 시간예술이라는 음악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은영(2005)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음악을 감상할 때 두뇌가 가장 활성화되는 시점이 바로 자극초기(90초)라고 밝혔으며, 박은정(2010)은 그의 연구를 통해 감각기억과 작업기억이라는 정보원을 통해 들어온 단기기억이 고작 12초 정도만 지속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소멸 또는 치환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음악적 인지기억을 더 명료하게 요구하는 교수-학습상황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이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학습자가 좀 더 선명한 기억을 바탕으로 비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음악작품의 내부를 비평하는 유형과 외재적 부분의 것을 다루는 유형 사이에 ‘재감상’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사실, 작품을 들으며 비평토론을 할 수도 있지만, 요구분석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감상 중의 토론을 지양하기 위해서 그 요구를 수업모형개발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단계 안에서 감상자는 먼저 작곡가의 작품에, ‘재감상’후에는 연주자의 그만의 개성 있는 연주법까지 범위를 넓혀 비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음악을 통해 작곡가와 연주가를 비평할 수 있다는 것은 미술과는 또 다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마지막에 있는 ‘종합’은 단계적 비평이 자칫 획일화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위험요소를 경계하는 기능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의 자발적 사고를 통한 재구성을 통해 모든 비평유형이 선별 및 취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사실, 기존의 음악비평관련 선행연구 중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스톨니츠의 예술비평유형과 펠트만의 미술비평단계를 이용해 초등학생의 비평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그 연구에서는 계속 바라보며 감상이 가능한 미술 감상과는 전혀 다른, 청각예술이라는 음악과의 특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또 예술만이 가지는 특유의 매력인 ‘첫 만남의 인상’을 빠트린 펠트만의 미술비평단계를 그대로 음악비평에 적용하면서 아쉬운 한계점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음악과 수업에 적합한 새

로운 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기존의 펠트만 미술비평단계에 따로 추가한 내용을 오각형 도형으로 표시하여 전체 단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맥락적 수정을 거친 음악비평단계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1차

본 연구를 위한 1차 연구대상은 전국의 맹학교 중 거점 지역이 다른 3곳에서 총 13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맹학교에는 다른 장애, 예를 들면, 발달장애 또는 지적 장애와 중복으로 시각장애를 가지는 학생이 많은 편인데, 이번 연구를 위해서는 오직 시각장애만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함을 밝힌다. 그리고 표집과정은 각 맹학교의 음악선생님께 의뢰하여 진행하였고, 순수 시각장애인 고등학생만 표집하려는 목적으로 인해 C 맹학교에서 3명, S 맹학교에서 6명, M 맹학교에서 4명이 산발적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성별을 분류하면, 남학생은 5명 그리고 여학생 8명이며, 학년별 분류로는 1학년은 2명, 2학년은 5명 마지막으로 3학년은 6명이었다. 또 시각장애 정도 및 유형을 살펴보면, 저시력¹¹⁾ 6명, 선천적 전맹¹²⁾ 7명으로 집계되었다.

11) 약한 시력을 가지는 자.

<표 1> 1차 연구대상

구분	성별	학년	시각장애 정도 및 유형	학교
1	여	고등학교 2학년	선천적 전맹	C 맹학교
2	여	고등학교 2학년	선천적 전맹	C 맹학교
3	여	고등학교 2학년	저시력	C 맹학교
4	여	고등학교 3학년	선천적 전맹	S 맹학교
5	여	고등학교 3학년	선천적 전맹	S 맹학교
6	남	고등학교 3학년	저시력	S 맹학교
7	남	고등학교 3학년	저시력	S 맹학교
8	남	고등학교 3학년	저시력	S 맹학교
9	남	고등학교 3학년	저시력	S 맹학교
10	여	고등학교 1학년	선천적 전맹	M 맹학교
11	여	고등학교 2학년	선천적 전맹	M 맹학교
12	여	고등학교 2학년	선천적 전맹	M 맹학교
13	남	고등학교 1학년	저시력	M 맹학교

2) 2차

연구자는 1차 연구대상의 설문과 문헌연구의 결과를 취합해 개발한 음악비평 수업모형 및 교수학습 목표 등에 대한 전문가 집중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이 때 전문가 집단은 2차 연구대상이고, 이들의 의견은 설계된 수업모형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표 2> 2차 연구대상

	성별	직책	경력	소속	시력
1	남	음악 교사	20년	M맹학교	일반
2	여	음악 교사	9년	M맹학교	일반
3	남	음악 교사	11년	S맹학교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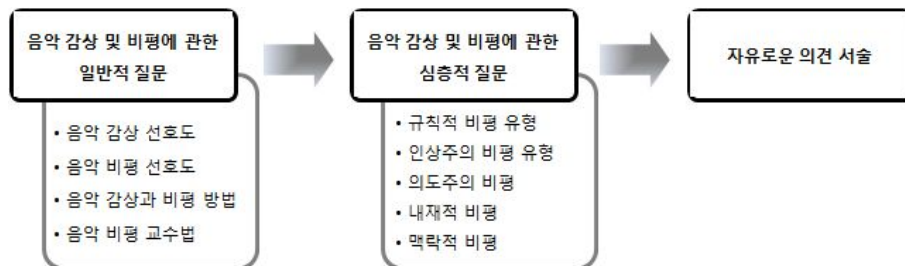
12) 태어날 때부터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자.

2. 연구도구

1) 맹학교 고등학생 대상 요구분석

13명의 1차 연구대상에게 음악 감상 및 비평에 대한 일반적 선호도를 알아보는 폐쇄형 질문 4문항, 스톨니츠와 펠트만의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된 심층적 폐쇄형 5문항, 또 마지막으로 음악 감상 및 비평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설계된 설문지¹³⁾는 해당 교사에 의해 집역하여 배부되었고, 연구자는 이를 회수한 후 분석하였다.

본 설문의 목적은 음악 감상과 비평에 대한 맹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연구자가 문헌분석을 통해 선택한 교수매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교수목적을 설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요구분석이란 학생들의 현재상황과 기대되는 바람직한 상황 사이의 격차를 분석하여 교수목표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특별히 연구자가 개발한 각 문항에 대해 전문가 2인에게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였다.



[그림 4] 설문 문항의 내용 및 구성

2) 전문가 집중 인터뷰(FGI)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시각장애인 음악비평 수업모형 개발에 반영하였다. 또 이렇게 개발한 수업모형은 2차 연구대상과의 전문가 집중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적합성을 진단받고, 본 수업모형은 필요시 수정·보완되어 후속연구의 파일럿 수업에 적용될 것이다. 여기에서 전문가 집중 인터뷰(Focus Group

13) 본 설문에 대한 답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되었고, “매우 그렇지 않다(1점) - 조금 그렇지 않다(2점) - 보통이다(3점) - 조금 그렇다(4점) - 매우 그렇다(5점)”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Interview)란 연구자가 연구 주제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듣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가 혼합된 형태의 연구이며, 교수매체가 될 문헌을 분석하는 문헌분석 방식과, 맹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폐쇄형 설문을 진행하는 양적 연구,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개방형 서술 및 전문가 집중인터뷰(FGI)를 통한 질적 연구가 사용되었다.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선정된 교수매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3개교의 맹학교 학생들 13명에게 배부하였다. 그래서 두 과정의 분석내용을 취합하여 만든 수업모형을 전문가들을 통해 적절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마무리된다.

4. 자료 분석방법

시각장애 고등학생의 음악비평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이 연구를 위해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으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특별히, 문헌분석을 통해 개발한 폐쇄형 설문문항의 분석을 위해서는 엑셀(Excel)통계를 사용하였고, 집중 인터뷰 내용은 모두 전사 후 질적 연구 코딩방법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장애 학습자가 쉽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음악비평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체계적 음악 감상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먼저, 연구자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음악비평 교수매체를 선정하여 1차 연구대상자인 맹학교 고등학생 13명에게 이에 관련하여 의견과 인식 등을 물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음악비평 수업모형의 적합성을 진단해 보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연구결과는 1차 요구분석, 수업모형 개발, 2차 요구분석으로 구성된다.

1. 1차 연구대상 요구분석

3개교의 맹학교 학생 13명의 음악 감상 및 비평에 대한 요구 및 인식을 분석해 본 결과 학생들은 평균4.47($SD=0.64$)으로, 음악 감상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음악비평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평균 3.62($SD=1.22$)로서 감상선호에 대한 평균보단 낮지만,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음악비평이 음악 감상 도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감상이 끝난 후에 하기를 바란다는 요구가 평균4.00($SD=1.04$)이었다. 계속해서 음악비평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 학생들만의 ‘대화’가 아닌, 음악교사의 전문적 음악지식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평균3.47($SD=1.01$)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음악 감상 및 비평에 대한 일반적 질문이었고, 이어서 연구자가 선정한 음악비평 교수매체를 근간으로 개발한 설문문항이 이어졌다. 이것은 스톨니츠(Stolniz, 1960)의 5가지 예술비평유형에 전형적인 요구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현재상황과 기대되는 바람직한 상황 사이의 격차를 분석하여 교수목표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 중 5가지 예술비평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평균값은 3.26($SD=0.46$)이었고, 그 중 인상주의 비평유형과 관련한 평균값이 4.00($SD=0.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재적 비평유형과 관련한 평균은 2.77($SD=1.05$)로 가장 낮게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폐쇄형 문항에 대한 방사형 차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학생 요구분석 결과 방사형 차트

계속해서 개방형 설문인 10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음악 감상 시간이 더 많았으면 하는 이야기가 다수로서 눈에 띄었다.

“음악 감상은 학창시절에는 음악시간에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졸업 후에는 솔직히 음악회 한 번 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음악 감상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1차 연구대상 중 1번 학생)

“음악 감상시간이 좀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시간이 너무 적다).”

- (1차 연구대상 중 5번 학생)

“음악 이론시간 보다는 음악 감상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 (1차 연구대상 중 12번 학생)

“마음이 답답하거나 무거울 때 음악 감상은 힐링 자체다.”

- (1차 연구대상 중 13번 학생)

위의 개방형 설문 결과는 맹학교 학생들에게 음악 감상이 긍정적인 매체임을 시사한다.

2. 음악비평수업모형 개발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했던 스톨니츠의 예술적 비평유형과 시각장애 고등학생들의 요구 및 인식을 바탕으로 설계된 설문결과와 펠트만의 미술비평단계를 음악과 특수성에 맞도록 맥락적으로 수정한 자료를 종합하여 음악비평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 특별히 언급할 점은, 음악작품의 특성에 따라 교사재량으로 불필요한 단계를 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학습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3> 음악비평수업모형¹⁴⁾

비평의 단계	단계별 음악비평유형	교수-학습 목표	교수-학습 형태
1. 음악 감상 (Music Listening)	-	• 이야기 없이 음악 감상	음악 감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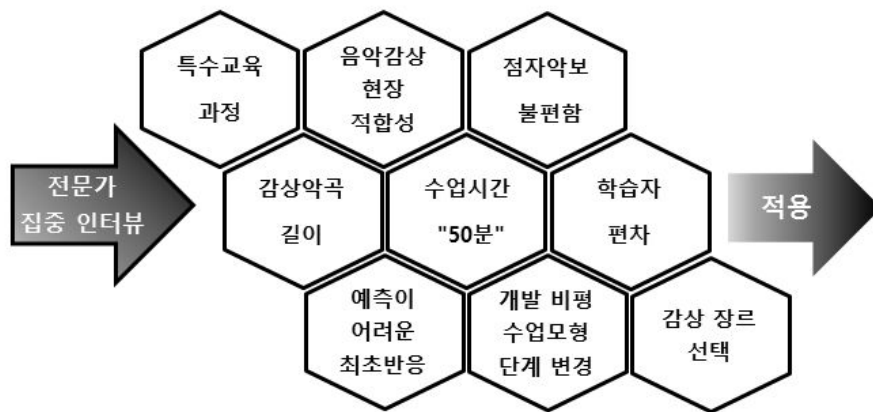
14) 개발한 모형의 이름은 각 단계의 첫 글자로 구성된 “Midfrie”으로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지칭될 것이다.

2. 최초 반응 (Initial Reaction)	인상주의 비평 (Impressionist Criticism)	• 작품을 감상하고 난 후 첫 인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 이 음악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이야기한다.	자유토론
□			
3. 서술 (Description)	규칙에 의한 비평(Criticism by "Rules")	• 이 음악의 장르(genre)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작품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할 수 있다.	강의식 및 자유토론
□			
4. 분석 (Formal Analysis)	내재적 비평 (Intrinsic Criticism)	• 작품 속에 존재하는 형식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작품의 구조와 구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강의식 및 자유토론
□			
5. 음악 재감상 (Re-listening)	-	• 이야기 없이 음악 재감상	음악 감상
□			
6. 해석 (Interpretation)	의도주의 비평 (Intentionalist Criticism)	•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 연주자의 표현적 의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작품의 주제를 말할 수 있다.	강의식 및 자유토론
□			
7. 평가 (Evaluation)	맥락적 비평 (Contextual Criticism)	• 음악사 안에서 작품을 맥락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강의식 및 자유토론
□			
8. 종합 (Comprehensive Critic)	모든 음악비평유형 (All kinds of Criticism)	• 위에서 사용한 5가지 유형을 혼합한 형식으로 비평할 수 있다. • 해당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자유토론

3. 전문가 집중 인터뷰(FGI) 결과

연구자는 시각장애인 음악교육 전문가 3인에게 집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것을 통해 시각장애 학습자의 음악 감상과 비평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바탕으로 음악비평 수업모형의 적절성을 진단하였다.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담은 시각장애인 음악교육 전문가 3인의 의견과 질문사항 등을 분석하여 핵심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전문가 집중 인터뷰 결과 모형

이들과의 집중 인터뷰는 맹학교 현장에서의 음악 감상 및 비평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한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하였기에, 맹학교 음악수업의 교육적 한계점이나 시각장애 학습자들의 특수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폭넓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는 음악비평 수업모형에 대한 의견만을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자가 개발한 모형에 대하여 현장 적합도를 질문한 결과, 세 명의 전문가 모두 시각장애인의 교수-학습 상황에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둘째, 단순히 모형만으로는 두 명의 연구자가 교수-학습 시간과 차시구성의 구체적 확정에 대하여 명료함이 없다고 평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가 더 확실히 언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셋째, 연구자가 개발한 비평단계의 순서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가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그 둘의 의견 모두 '5. 재감상(Re-listening)'순서의 배열에 관한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두 명의 전문가는 점자악보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는 효과적인 감상 및 비평수업을 방해하는 큰 요소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전문가 집중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의견들은 후속연구에서 수행할 파일럿 수업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적용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음악 감상을 즐기는 시각장애인들이 체계적 비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음악비평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삼각측정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문헌분석과 학습자인 시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분석 설문지 통합을 통해 음악비평 수업모형을 개발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수자인 맹학교 교사들로부터 개발한 모형의 적합성을 진단받는 전문가 집중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맹학교 고등학생들은 음악 감상에 대해 평균4.47(SD=0.64)의 값으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음악 감상이 맹학교 학생들에게 고무적인 음악 교수매체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음악비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평균3.62(SD=1.22)로서 감상 선호도보다는 낮지만, 3점(보통이다)을 초과하는 값이라는 점에서 해당항목에 관한 학습의욕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 중 5가지 예술비평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평균은 3.26(SD=0.46)이었으며, 그 중 인상주의 비평유형과 관련한 평균값이 4.00(SD=0.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재적 비평유형과 관련한 평균은 2.77(SD=1.05)로 가장 낮게 드러났다. 이는 작품을 감상하고 난 직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유의미한 관심도를 뜻한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연구자는 펠트만의 미술비평단계를 맥락적으로 수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연구자는 위의 설문결과와 문헌분석을 통합하여 시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음악비평 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총 8단계로서 음악 감상, 최초반응, 서술, 분석, 재감상, 해석, 평가, 종합의 순서를 거친다. 이렇게 개발한 음악비평방식은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다른 연구에서 개발된 음악비평수업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음악과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

또 연구제목에 있는 ‘시각장애 학습자’는 어느 특정 학교급에 속해있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음악 감상 및 비평’이라는 교과목이 특수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과정에만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음악 감상과 비평이 반드시 고등학생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활동이다 보니, 본 모형은 맹학교 중 어느 학교 급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별히, 미적 인식과정에 대해 연구한 예나윈(Philip Yenawine, 2001; 정수기, 2008, p. 122에서 재인용)은 미적 발달이 반드시 나이와 비례하여 성장하는 것은 아니며 아동이나 성인이나에 따른 구체적 결과가 아닌 더 오랜 시간 작품에 대한 노출만이 발달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가 다양한 연령대에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한 근거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이 음악비평모형은 일반교육과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각적 학습매체의 요소를 모두 제거한 채 개발되었기 때문에, 시력이 있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위해서 시각적 자료의 활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개발된 모형은 교실 현장의 상황이나 작품 또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각 단계를 누락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 모든 단계를 다 적용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이라면 누락시키지 않는 편이 좋다.

끝으로, 전문가 집중 인터뷰(FGI)를 통해 연구자는 시각장애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비평 수업모형에 대한 실제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세 명의 전문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현장에서의 적합성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음악비평 수업모형의 구체적인 차시계획이나 단계의 변동 등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에게 실질적 적용을 배제한 채 전문가 집단의 의견으로만 모형을 수정하기에는 현장에서의 많은 변수가 어렵지 않게 예측될 수 있다. 그래서 연구자는 후속 연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수업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파일럿 수업을 실시 및 관찰하면서, 개발한 음악비평수업모형을 더욱 효율적인 모형으로서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제언

본 음악비평 수업모형을 개발하면서 음악 감상과 비평이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선택교육과정을 택하지 않는 이상,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음악수업을 받게 된다. 이것은 많은 성인 시각장애인들의 삶이 음악을 통해 풍부해지는 양상을 지지하는 교육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맹학교의 교수-학습의 지침이 되는 특수교육과정에서 음악은 3학년까지 공통교육과정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 맹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집중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은, 점자악보의 비체계성과 불편함으로 인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더욱 효과적인 음악비평수업을 위해서도 점자악보의 활용은 불가피하며, 악보의 가독성만 확보된다면 학습의 질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우리 음악교육계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 김중무, 문성준, 서인환, 이명걸 (2000). **시각장애학생의 교과지도를 위한 정보매체 활용**. 서울: 국립특수교육원.
- 김도연 (2017).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음악비평 수업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김은영 (2005). 음악적 자극이 개인의 뇌와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 학회지**, 7(1), 6.
- 김홍대, 이해균 (2014). 시각장애학교 합주부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시각장애 연구**, 30(3), 45-68.
- 김창환, 안현주 (1999). 비평을 통한 감상 교육의 방안 연구. **초등교육연구논총**, 14, 139-160.
- 박은정 (2010). 음악정보처리와 음악적 기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13.
- 박진홍(2009). 음악비평 활동을 활용한 음악학습 프로그램 개발. **음악융용연구**, 2, 27-56.
- 배여진 (2008).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통한 초등학교 6학년 미술 감상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서대정 (2013). 예술비평과 메타비평 그리고 권력의 변증법. **민족미학**, 12(1)
- 송영진 (2013). **미와 비평**.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신설령 (1992). 음악비평의 역사와 실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우문영 (2011). 비평교육의 방법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17.
- 윤현미 (2004). 미술비평방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미술감상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규림 (2017). 역량 기반 아동색채교육의 개념화를 위한 기초 연구 :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51.
- 이보림 (2015). 시각장애인에게 음악하기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음악교육공학**, 23, 137-156.
- 이은적, 류재만, 전성수, 김홍숙 (2004). **재미있는 미술 감상 수업**. 서울: 예경.
- 이지혜 (2013). 예술교육에서 평가의 의미.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정수기 (2008). 하우스젠(Hausen)의 미적 발달 단계가 미술 비평 교육에 주는 시사점. **미술교육논총**, 22(2), 109-128.

- 주대창 (2017). 소통과 융합의 관점에서 본 한슬릭의 음악미학. **음악교육연구**, 46(1), 131.
- 차성연 (2017). 비평을 활용한 자기성찰적 글쓰기 수업 운영 방안. **비평문학**, 63.
- 최동연, 김민정 (2015).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에 적용된 대체 감각 연구 동향. **장애와 고용**, 25(4), 6.
- 한상일 (2012).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관한 연구 : 마음으로 보는 세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4.
- Blake, H., Stephanie, J. Neil. L. & Joseph, S. (2016). *Music & Disa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Feldman, E. B. (1970). *Becoming human through art : aesthetic experience in the school*. N.J: Prentice Hall, 350-351.
- _____. (1984). **미술의 구조적 이해**. 김춘일 역. 열화당.
- Susan, H. (2011). **음악교육심리학**. 고선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3.
- Stolnitz, J. (1960).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U.S.A.: The Riverside Press.
- _____. (1991). **미학과 비평철학**. 오병남 역. 서울: 이론과 실천.
- Aschenbrenner, K. (1974). *The Concepts of Criticism*. Boston: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National Geographic (2016). **실명의 종말**. 한국판. 서울: YBM, 2-25.
- Ri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 Psychology*, 25, 54-67.
- Brown, W. (1991). **음악비평**. 대한음악저작연구회. 서울: 삼호출판사.
- 교육부 (2015). 특수교육과정. 접속일 01.09.2017.
<http://www.moe.go.kr/newsearch/search.jsp>
- e나라지표 시스템(2016). 장애인 통계. 접속일 01.09.2017.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8.

ABSTRACT

The Development of Music Criticism Instruction Model for the Visually Impaired Learners

Bolim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usic criticism model for the visually impaired learners so that the blind who enjoy music appreciation can have systematic critical ability. Therefore, the researcher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for teaching materials, and conducted a demand analysis of 13 high school students in blind schools in order to understand the needs and perceptions of visually impaired learners about music appreciation and criticism. After analyzing the literature and questionnaire results, I developed a music criticism model and then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FGI) with three teachers in blind Schools to diagnose the fit of the model.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of triangulation, it was found that the students in those blind schools had a high interest in appreciation with an average of 4.47(SD = 0.64) and the interest in criticism was 3.62(SD = 1.22). Particularly, students showed a high response to impressionist criticism types among various criticism types. Finally,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8th grade criticism model, which is a fusion of 5 types of art criticism by Stolnitz and the contextual Modification of Feldman criticism stage, were evaluated by 3 experts. The result was positive evaluation from all 3, I was asked to review about the plan and stage.

Key words: music criticism type, music criticism phase, music criticism instruction model, music education for blind learners, Music Education, special music education, contextual modification

투고일: 9월 30일, 심사(수정): 12월 9일(12월 11일), 게재확정일: 12월 11일